

## 광산업체 지원위한 다각적 방법 모색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광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가 방안마련에 나섰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광산업체들에 대해 만기도래한 정책자금 상환연장이 적극 검토되며, 기술 신보 등 보증기관들이 광산업체를 지역 특화산업으로 지정, 보증한도 증액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7월 29일 시청에서 심재민 행정부시장 주재로 광산업체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한데 이어, 8월 8일 오전 광주 센트럴 호텔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주재로 열린 금융·유관기관 조찬간담회에서 금융·보증 기관들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이인식 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장은 “총액한도 대출액을 증액, 광주지역 전략산업인 광산업체 등에 대해 모두 692억원을 지원하며, 추석 전에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광주·전남 중소기업에 특별운영자금 2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상용 광주은행 부행장은 “지난 99년 이후 창업한 광산업체들이 자금 대출로 압박을 받고 있다.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환 연장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29

개 광산업체에 대해 216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자체자금 116억원은 상환기일을 연장하겠으며, 대외자금 100억원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해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약속 했다. 최영기 기술신용보증기금 광주지점장은 “일부 광산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상태임을 잘 알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 만기도래한 자금의 상환연장의 적극 검토와 광산업 지역 특화산업자금 지원대상을 지정, 확대 지원할 것도 검토하겠으며, 바이오 산업 등 지역대학과 관련된 사업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철 신용보증기금 광산지점장은 “광산업이 지역 특화산업자금 대상업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광산업은 IT나 벤처기업이므로 특화산업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채권은행에서 상환기일연장 요청이 오면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양해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확대, 금융기관 BIS비를 하향조정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8월 12일엔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의실에서 광산업체 활성화 방안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관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기관 및 단체 26명이 참석했는데, 전영복 한국광산업진흥회 상임부회장은 광산업과 광기술 동향에 관해 보고하고, 7개 광관련 업체들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들은 뒤 토론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 FTTH에 적합한 맥내 인입용 광케이블 개발

광주 첨단단지 소재의 광케이블 전문 제조업체 글로 벌광통신(대표 박인철 <http://www.glights.com>)은 최근 FTTH(Fiber To The Home)에 적합한 맥내 인입용 광케이블(일명: DRY CORE CABLE)을 개발하였다. 이번 개발된 DRY CORE CABLE은 기존의 루즈튜브형 광케이블에 비해 중량과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가입자 맥내 광케이블 설치 시 대두되었던 설치공간 확보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였다.


이 케이블의 가장 큰 특징은 케이블 코어를 DRY TYPE으로 처리한 것이다. 기존의 광케이블은 젤리를 충전함으로써 수직 설치 시 젤리의 누출 및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광섬유 접속에 따른 단말처리 시 젤리처리로 인한 작업의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DRY CORE CABLE은 젤리가 없기 때문에 단말처리 작업이 간편하므로 광섬유 접속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기존 광케이블에 비해 5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이번 개발된 광케이블의 구조는 한 가닥 이상의 광섬유를 광케이블 중앙에 위치한 원통형의 빈 공간에 삽입하고, 좌우 또는 상하 위치에 대칭으로 두 개의 인장선을 삽입한 직사각형 또는 타원형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삽입된 인장선과 버퍼층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광섬유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광학적 특성 및 기계, 환경특성이 우수하고, 케이블의 외피는 손으로 쉽게 탈피가 가능하며, 기존의 광케이블에 비해 외경이 작고 중량이 가벼워 케이블 설치 시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가격은 기존 광케이블(루즈튜브형)에 비해 50~60%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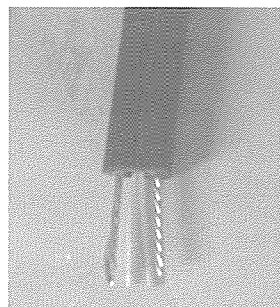
PVC, PE, LSZH 등의 피복 재질로 제조가 가능하며, 특히 LSZH(Low Smoke Zero Halogen)재질의 피복은 난연성이며, 유독성 연기가 발생되지 않아 화재시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적고, 내부식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품의 규격은 4mm×2mm, 6mm×3mm,

8mm×4mm 등 다양하며, 각 케이블의 규격마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광섬유 형태로는 12심, 버퍼형태로는 6심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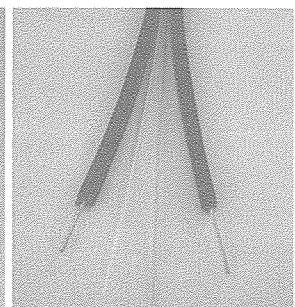
옥내, 옥외 겸용이므로 CATV가입자, 사이버 아파트, 오피스빌딩, PC방, 관공서, 학교, 일반주택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회사 연구소장인 안보영 이사는 “DRY CORE CABLE은 기존 광케이블에 비해 중량을 1/2, 부피를 1/3로 줄임으로써 광케이블 설치시 공간 확보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FTTH에 적합한 인입용 광케이블이며, 최근 신규 제조설비를 설치해 월 2,000Km 대량 생산체계를 갖추었다”고 말했다.

DRY CORE CABLE은 한국광기술원(원장 최상삼)의 시험설비를 활용해 성능테스트를 마쳤으며, 현재 국내에 특허(20-2003-0008594)를 출원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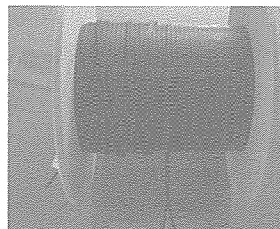
① 케이블 원 상태



② 케이블 탈피 상태



③ DRY CORE CABLE 기존 상태



④ DRY CORE CABLE 커넥터 부착상태

